주일예배
오전(1부) 대행등 7시
오전 (2부) 8시
오전 (3부) 11시
오후 (4부) 2시
금요철야 (밤) 10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주일예배
오전 (1부) 7시
오전 (2부) 8시30분
오전 (3부) 11시
오후 (4부) 2시
수요예배 (밤)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2008년 10월 12일 (제450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533-9191 Fax. 592-9191 /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칼럼

헝그리(hungry) 정신

' 헝그리 정신 '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은 권투선수들이다. 지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2,30년 전만 하더라도 권투 선수에게서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을 벗기 위해, 배고픔으로 탈출하기 위해 그야말로 악바리로 샌드백을 두들겼고, 그렇게 훈련해서 상대를 때려눕혔었다. ' 너를 눕히지 못하면 내가 굶어죽는다 ' 라는 생각으로 싸웠던 것이다.

' 헝그리 정신 ', 먹는 것이 지천인 현대에 이 정신은 상실됐다. 배고파본 자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것, 일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정신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 헝그리 정신은 성공의 절대 요소다.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 늘 배고프고, 늘 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라(Stay hungry, stay foolish.). " 배고프면 근성이 나오고 악바리가 된다. 그런 정신으로 뛰어야 성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나는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했다.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뛰었다.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회성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었다. 그것이 오늘의 예루살렘 교단이며, 내 자신이다.

옛말에 궁당익견(窮當益堅)이라 했다. 곤궁할수록 그 지조가 더욱 더 굳어진다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수록 강한 정신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헝그리 정신을 찾기 위해 세상을 배고픈 시절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에 배수진을 치면 지금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지금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헝그리 정신으로 세상에 도전하라. 반드시 챔피언이 되리라.

고정간첩만 잡아내면 국가가 평안하다

"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11:16~17).

이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집회를 두고 목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 몸부림치고 계셨다. 우크라이나에서 본 이상이 심상치 않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상 교단 전체의 복지부동이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계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받아들이시고, 교단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셨다. 전 교역자 및 성도들의 금식기도와 노방전도가 시작되고, 교역자 세미나를 통해 ' 교단이 하나 '임을 주지시키며 전도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올랐다. 게다가 집회를 며칠 앞둔 주일아침, 목사님은 교단에서 발행되는 책자 및 음반물 가격의 대폭 인하를 단행, 누구나 저렴하게 구입하여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셨다. 우리 교단의 오늘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전국과 전 세계에 배포하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는 사역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기도원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무료로 먹이고 재우며, 한국의 영성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해외 목회자들에게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왕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사례할 뿐 아니라 우리 같이 대접해주는 교회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배우고자 애쓴다. 우리 교단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간파한 목사님은 차제에 모든 제작물들을 염가에 제공하여 적극 전도에 활용토록 조치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가슴에 품게 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

집회 하루 전인 지난 월요일, 집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과 스태프들이 체조경기장에 모였다. 단상을 꾸미고 성도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며 앰프 및 스크린 설치, 현수막 부착 등 집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던 중, 현장 점검 차 체조경기장으로 나오셨다. 스피커 위치를 교정하고, 단상 계단을 이동하는 등, 대대적인 조정 작업이 있었다. 더 나은 길이 있다면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실험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은 필요불가결하다. ' 이 정도면 됐어 ' 가지고는 안 된다. ' 이것이라야만 해 ' 라는 정신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집회 첫날, 목사님의 수정 지시에 따라 기도원에서 걸개그림이 공수되고 밤을 새워가며 제작된 현수막들로 경기장 내부가 새로이 꾸며졌다. 그렇게 집회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비어있는 모든 좌석을 향해 기도하였다. 저 모든 좌석의 주인들이 찾아와 이 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히 빛나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목사님은 첫날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참 지식을 강조하셨다.

" 하나님 말씀하시길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아는 자 만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지식기반사회라고 정의하는 것도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얻어 내 나라와 내 기업을 살찌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3면 계속>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집회(2008년 10월 7일 ~ 9일)

증거한 말씀대로 고정간첩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 오직 성령이 역사해주시기를 갈구하시는 목사님

소경이던 여인을 안수하자 귀신이 떠나고 방언을 말하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 설교 (눅 5:1~11)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이 버스가 사고 나지 않을 거다 ' 라는 믿음이 있어 버스를 타고, '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 라는 믿음이 있어 음식점에서 독극물 테스트를 하지 않고 바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 믿음을 ' 자원적인 믿음 ' 이라고 합니다. 이 자원적인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지요. 그 다음으로 ' 구원적인 믿음 ' 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갖는 초보적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10:9).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믿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 은사적인 믿음 ' 입니다. 이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 저 산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옮길 것이라는 큰 믿음을 말합니다. 이는 누구나 소유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올챙이가 자라 개구리가 되듯,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다 죽은 것이거나 병든 것입니다. 만일 20살이나 되는 아들이 매일 엄마 젖만 빨고 있다면 심각한 일일 겁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이 20년인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즉, 구원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를 예사로운 일이라고 간과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대치를 높여야 우리 삶의 기대치가 높아진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평생을 부모 품 안에서 재롱이나 떨고 있는 것을 바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사회로 나가 사회에 이바지도 하며, 결혼도 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가져 부모에게 용돈도 주는 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젖만 먹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쭉쭉 자라 나가 활동하고, 남도 가르치고, 적이 들어오면 총칼 들고 나가 싸워줘야 아버지로서 더욱 기쁘고 든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히5:13~14).

잘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옷도 맞는 것으로 입히고,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듯 하나님도 믿음에 장성한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총으로,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전 · 12:8~11).

베드로는 본시 배운 것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백성들을 가르치니 말씀을 듣는 수가 남자의 수만 오천 명이었고, 또 그가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은 물론이고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 앞에서도 기탄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행4:13). 어디 그 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행3:1~10),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습니다(행5:15). 어떻게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은사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 베드로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저 역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전 세계를 다니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가 목사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우리 교회 노(老)장로님이 중풍이 와서 쓰러졌을 때 그의 아내 되신 권사님이 '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을 일으키는 귀신아 가라. ' 하고 귀신을 내쫓아 장로님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곧 은사란 누구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 매일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기는 힘들지만 가서 그물만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론의 파도도 뛰어넘어야 하고, 상식의 파도도 뛰어넘어야 하며, 지식의 파도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만 하면,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배가 가득할 뿐 아니라 남의 배도 채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저 산더러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기게 되고, 악한 영들을 명하면 쫓겨 가고, 태양을 명하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말처럼 ' 말씀에 의지하여 ' 야 합니다. "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눅5:5). '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마는 ' 즉, '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기적을 동반한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 저 산을 명한다고 이리로 올까? ' 하는 지식이 앞서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명하면 저 산이 이리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입에 손을 넣으시고 ' 에바다 ' 하신 대로 합니다. ' 그런다고 될까? '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16:17)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신대로 하면 되더란 말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그 곳에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 모릅니다. 가봐야 압니다.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와 보십시오. 들어와서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갈매기는 어부가 던져놓은 죽은 생선이나 생선 내장으로 배를 채우지만, 어떤 갈매기는 바닷물 속에 다이빙하여 신선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 갈매기는 더는 어부의 뱃전을 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고기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신앙의 맛을 본 자는 남의 간증이나 듣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간증을 전하는 자가 되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은 풍랑이 셉니다. 신앙이 깊은 곳은 악한 마귀의 공격과 핍박과 모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물고기가 많듯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행하심이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기쁘고 대견합니다. 뭔가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욱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됩시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수도 서울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구하는 서울집회 광경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호 4:6)

<1면 계속>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 '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시기에 앞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참 지식, 곧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란 우리 몸에 투입된 고정간첩과 같습니다. 고정간첩은 시민들과 동일하게 생활하며 본국의 지시를 받아 국가 내부를 교란시키고 급기야는 멸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마귀의 지령을 받아 우리 몸에 투입되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고정간첩인 귀신만 쫓아내면 악한 마귀와 악령들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국내거점을 마련하고 사회내부를 교란시키는 고정간첩만 잡아내면 국가가 평안한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지식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는 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든지, 지식을 배척하든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먹든지 알고도 무시하고 먹든지 쥐약을 먹으면 죽는 것이요, 경고를 무시하든지 모르든지 지뢰밭에 들어갔다가는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박사요 교수요 회장이요 사장이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일 뿐입니다. 구더기도 썩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라는 외침입니다. 벼랑을 향해 가는 소경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는 진실로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참 지식을 모른 채 지옥으로 향해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집회를 배설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참 지식을 받은 자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목사님은 모두가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촉구하셨다. 영상을 통해 보았던 해외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도 나타났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갔고, 중풍병자, 소경 등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증거한 말씀 그대로 기사와 표적이 이어진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올라왔다가 귀신이 드러나 요동하기 시작했다. 헛구역질을 하고 괴성을 지르며 자신이 군대귀신이라고 소리쳤다. 군대란 귀신이 많음을 말한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녀는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일어나 눈이 보인다며 기쁨으로 찬송하였다. 변하지 않는 참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목사님은 성경이 응하는 현장을 목격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사람씩 전도해올 것을 주문하며 이 전을 채울 것을 독려하셨다.

' 이 정도면 됐어 '는 안 된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또한 참 지식을 소유한 자의 당연한 자세이다.

<다음 주에 계속>

잠언 에세이

행한 대로 받는다

아들아,
사람은 누구든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단다.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도 하지.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꾸나. 요즘 세대는 무계획한 흥부보다는 놀부 쪽에 점수를 더 후하게 준다고도 하더라만 지금은 그들의 행위만 살펴보자구나.

놀부에게는 남에게 없는 심술보가 하나 더 있었지. 그래서 무슨 일에든 심술을 부리고 남을 못살게 구는가하면, 남이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았지. 그러나 흥부는 가난했지만 사랑이 많고 남에게 후한 편이었단다. 그래서 부러진 제비 다리를 못 본 체하지 않고 고쳐 준거야. 그랬더니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줘서 그것을 심었더니 주렁주렁 박이 열렸고 그것을 타보니 거기에 온갖 금은보화가 잔뜩 들어있어 순간 신세가 주름살 펴지듯 펴게 되었지. 이 소식을 들은 놀부가 가만있었겠니. 당장 제비 다리 하나를 일부러 부러트려놓고는 다시 싸매주었지. 물론 제비가 놀부에게도 박씨를 물어다주었단다. 그래서 ' 옳다구나 ' 하고 심었는데 박이 아주 실하게 잘 열린 거야. 그래서 놀부는 잔뜩 기대를 하고는 신이 나서 박을 타보니 웬 걸, 거기에서 도깨비가 나와 놀부를 때리고, 또 박을 타니 도깨비 하인들이 나와 집안 살림을 다 부수고, 다시 박을 타니 집이 아예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 아니겠니? 놀부전이 마당극으로 연출되면 이쯤에서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친단다. 왜 그러겠니? 나쁜 짓, 못된 짓만 하던 놀부가 당하는 꼴이 고소해서 그런 거란다.

잠언의 말씀이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報應)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

아들아,
우리는 대가(代價)라는 말을 자주 쓰지. 뭔가 잘해줬을 때도 ' 이건 대가야. ' 라고 답례를 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나 악을 행했을 때 그가 다치거나 손해를 보면 ' 대가를 치른 거지. '라고 말을 하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는 거야. ' 종두득두(種豆得豆) '라는 거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거지. 그렇단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은 만고의 진리란다. 악을 심었는데 선이 난다면 누가 굳이 선을 심겠니? 그러나 선을 심었는데 가끔 악이 나는 경우는 있지. 그것은 씨를 심었는데 피가 먼저 올라온 격에 불과하단다. 아비 어릴 때 밭에 씨를 심어놓으면 피가 먼저 쑥 자라지. 그러면 할머니가 피를 뽑아내라고 하셨단다. 그리고 나면 제 싹이 나오지. 선이 좀 더디 난다는 거지, 악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란다. 성경에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단다.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니? 좋은 것을 뿌려라.

귀를 기울이세요

대잔치가 끝났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의 사흘간의 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 그동안 이 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땅끝예수전도단 회원 여러분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회가 끝나면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악한 것들은 이때를 노리지요. 그래서 ' 잔치 뒤에 도둑 든다. 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의 환갑이나 결혼식이 있고나면 그 집에 꼭 도둑이 들었습니다. 잔치 끝나고 곤하여 잠잘 때 도둑이 와서 잔치에 들어온 돈을 훔쳐가고, 심지어 고추장, 된장독을 싣고 가기도 했습니다.

멋지게 잔치를 끝낸 우리에게서 악한 것들은 틈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악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게 해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작은 구멍으로도 들어옵니다. 우리교회 안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영적인 구멍이 뚫리지 않게 살피고,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호사마다(好事多魔)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악한 것이 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늘 깨어 있는 우리 예수중심교회에는 좋은 일만 계속 될 것입니다. 쭉~.

:: 인터뷰 ::

‘ 전도 ’, 그것만이 예수중심교회가 나아갈 길이며, 방향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회복을 기대하며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전도 집회를 맞이하여 이번 집회를 총지휘한 서울 예수중심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를 만났다. 이 인터뷰는 집회의 성공을 위하여 불철주야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이시대 목사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기자 : 서울 집회를 열게 된 소감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이시대 목사 : 우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금번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3만여 명을 수용하는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집회이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가능한 많은 양떼를 몰아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 이렇게도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자 : 집회 준비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요.

이시대 목사 :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교 영상물과 출판물 가격의 인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원가, 혹은 원가 이하의 부담이 없는 가격에 영상, 출판물의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총회장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손쉽게 전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 않습니까. 새신자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는 데에 영상만큼 효과가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를 시작하기 전, 각 교구별, 지역별로 자리를 배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조 경기장을 일곱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러하였듯이. ‘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체조경기장아, 차고 넘쳐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행인들은 갑자기 웬 사람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니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몰라 그 자리에 멈춰 서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군요.

기자 : 올림픽공원과 체조경기장은 예수중심교회의 과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돌아온 소감은 어떠하신지.

이시대 목사 : 처음으로 서울 주일예배를 시작하였던 장소가 바로 올림픽공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므로 처음 올림픽공원이 지어졌던 때와 얼추 비슷한 시기지요. 그 당시 어린 아이만 하던 묘목은 어느새 장성하여 아름드리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내리신 축복이 겹쳐 보이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성도로 시작된 교회였으나 이제는 그 가지를 전 세계로 펼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기자 :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이시대 목사 :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라 전체의 영성이 가라앉아 쉬이 동하지도, 쉬이 불붙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 비디오 전도는 우리 성도들의 의식을 고양시킴은 물론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었습니다. 비디오 전도에 참여하였던 성도들은 하나같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디오 전도를 하는 지역을 쭉 돌아보았는데 많은 곳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는데 경찰의 반응은 한결같이 ‘ 별로 시끄럽지도 않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없는데 왜 신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고 하더랍니다. 은혜롭게도 어느 한 군데 중단된 곳 없이 집회 때 까지 무사히 비디오 전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자 : 집회를 통하여 한국 교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시대 목사 : 아까도 언급하였듯 한국의 교계는 침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성공적인 부흥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 부흥의 불길은 모두 처음에는 자그마한 불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천 년 전 예루살렘이 그러하였고, 영국의 웨일즈가 그러하였으며,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가 그러하였고, 한국의 평양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인데, 그 바람은 예루살렘 교단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믿고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자: 예수중심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십시오.

이시대 목사: 전도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이번 부흥회가 아주 좋은 표본이지요. 행하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는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차리면서,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어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체면을 버리는 자세, 핍박을 두려워 않는 자세의 극한이 순교입니다. 믿음의 선친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 전도 ’,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기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In His image... 그의 영상대로

***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 ***

"Therefore be imitators of God, as well-beloved children "(Ephesians5: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엡5:1).

* Pastor : My brothers and sisters! When you imitate God, when you do things His way, you get His results!
* Congregation : Hallelujah! Thank You for being our Father!
* Pastor : God's way's always lead to life, freedom and blessing!

* imitate : ~을 본받다, 모방하다 * result :결과, 결말

목사님 :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회 중 :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여러분을 생명과 자유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카더라 통신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들 한다. 라디오나 신문, TV같은 고전적인 매체들은 물론이요, 인터넷, 위성, 휴대 전화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단 하루 동안 제작된 뉴스를 전부 시청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몇 년이 소요된다 하니 현대인들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데 범람하는 미디어 중에서도 유독 살인적인 파급력을 지닌 것이 있다. 다름 아닌 ‘ 카더라 통신 ’이다. ‘ 카더라 통신 ’이란 어떤 일을 전할 때 확실히 누가 말한 것인지 또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 ~하더라 ’ 식으로 말하는데, 경상도식 발음 ‘ ~카더라 ’에서 유래된 말이다.

중국에는 세 사람이 모이면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참말로 만들 수 있다는 ‘ 삼인성시호 ’(三人成市虎)이라는 고사가 있다. 한 두 사람의 거짓말은 그저 헛소문에 지나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헛소문은 더 이상 헛소문이 아니게 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 시대 서동은 선화공주에 대한 유언비어를 동요로 퍼트려 일국의 공주를 나라에서 쫓아내었다고도 한다.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의 원인이 그 마을에 숨어있는 마녀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져, 애꿎은 사람이 마녀 사냥을 당하였다는 억울한 기록도 전해진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대판 서동요, 현대판 마녀 사냥은 그 확산 속도와 파괴력에 있어서 과거의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번 인터넷에 루머가 퍼지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반나절이 채 안 걸린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연예인 자살 사건의 이면에는 고약한 악성 루머가 있었다 한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무서운 언어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말 한 마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는지,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단 1초도 깊이 생각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경고한다. “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약3:5).

항상 세 치 혀를 조심하자.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이는 법이니까.

지혜의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자존심만 앞세우는 사람이
어찌 다시 영광을 얻을 수 있으랴
네 자존심을 무덤에 묻어 버려라
그곳에서 재기의 새싹이 움터나리라

이초석 목사 멕시코 이슬라 베라크루스 집회

* 일시 : 10.13(월)~10.23(목)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